

한국과 중국에서 '정(亭)' 건축 기능의 변화에 대한 문헌적 고찰

A Literature Study on the Functional Change of 'Jeong(亭)'
in Korea and China

이 정 아*

Lee, Joung-Ah

(한양대학교 ERICA 연구교수)

Abstract

In Korea, the function of Jeong(亭), Jeongja(亭子), and Nujeong(樓亭) architecture is essentially rest. However, in China, where the name Jeong was first coined and used, Jeong was not only used as a place of rest, but also for a variety of functions depending on the time and region, such as building units for guard posts, policing, and mail delivery. But why is it that in Korea, Jeong is primarily perceived and used as place of rest? Starting from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emergence of Jeong and its changing functions, focusing on the official history of China, and then examines the perception of Jeong in Korea through its connection to the dominant function of Jeong in China during the period of Jeong's emergence in Korean literature. This will help us to fundamental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Jeong architecture in Korea and Jeong architecture in China, and to further clar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ypes of Jeongja and Nujeong architecture in Korea.

주제어 : 한국, 중국, 정자, 누정, 기능

Keywords : Korea, China, Jeongja, Pavilion, Function

1. 서론

한국에서 '정(亭)' 혹은 정자(亭子), 누정(樓亭)은¹⁾ 건축의 한 유형이자 수려한 경관 속에 자리잡고 경관과 어울어진 환경조형물이며, 문학 및 예술을 통해 의미부여된 종합예술품이다. 이러한 '정'에 대한 연구는 건축과 조경학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철학, 문자문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일찍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 건축의 기능을 역사적 관점에서 규명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 건축의 기능은 매우 다양한데, 기능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로서 「누정건축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전남지방의 누정을 중심으로」에서 연구자는 정(亭)의 기능을 크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분하여 총 17개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²⁾ 이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여 누정의 기능을 넓게 파악하고 분류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세분한 기능 중에 군사(軍事), 향약(鄉約) 시행처, 치수(治水) 등 특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정은 군사나 향약, 치수 제도의 틀 속에서 있는 정이 아닌 그러한 기능의 장소에 있는 하나의 특정 건축명을 가리키는

* Corresponding Author : pyorong@hanyang.ac.kr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22S1A5A2A03050619. '(사)한국건축역사학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활용'에서 발표한 이후 수정·보완한 것임.

1) '정' 건축은 정자(亭子), 누정(樓亭)으로 주로 부른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치안이나 우역으로서의 '정'을 포함하기 위해 '정자'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루(樓)와 정(亭)을 구별하여 이 글에서는 루가 아닌 정만 다루기 위해 '누정'이 아닌 '정'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가. 정치적 기능: 연회 접대, 치적홍보, 사장(射場), 군사; 나. 사회적 기능: 정(亭), 향약시행처, 교화소, 강학소; 다. 문화적 기능: 시단(詩壇), 제실(祭室), 별서, 서고, 종회소(宗會所), 종교 의식; 라. 경제적 기능: 치수(治水), 향구, 감농소(監農所)" 김태식, 「누정건축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전남지방의 누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논문, 1999, 72쪽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루’ 또한 포함하여 분류한 기능이고 그런 특수한 기능의 사례 또한 다른 사례에 비해 소수에 속한다. 누정의 주요 기능은 “누정의 일반적 의미는 피서와 유락, 시단(詩壇), 산수경관의 조망(眺望) 등을 위하여 산수가 좋은 장소에 조영된 간단한 건축물”³⁾에서 보이듯이 기본적으로 유식(游息)⁴⁾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도 정 건축의 기능은 설립 주체나 위치, 규모 등에 따라 휴식, 강학, 모임, 은둔, 기념 등으로 세분되기도 하지만⁵⁾ 더 넓은 역사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는 상대적으로 사적인 유식의 기능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정’이라는 명칭을 먼저 만들어 사용한 중국에서 정과 관련된 역사 문헌 및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은 유식의 장소로서 하나의 건축유형일 뿐만 아니라 초소, 치안 및 정보 전달을 위한 단위 기구 혹은 건축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공적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 정이 사적 용도로 주로 인식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중국의 진과 한, 위진남북조 및 당까지 그리고 한국의 삼국과 통일신라까지를 시간적 연구 범위로 하여, 중국의 정사(正史)류 기록을 중심으로 ‘정’이 등장하고 그 기능이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헌에서 정이 등장하는 시기에 중국에서 정 의 주도적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에서 정에 부여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는 한국의 정 건축이 중국의 정 건축과 지닌 차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여, 한국에서 누정건축이라는 유형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중국 당(唐) 이전 시기 ‘정(亭)’의 등장과 기능 변화

중국에서 정 건축과 형식이 유사한 고상식(高床式) 건축이 선사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과 별개로, ‘정’ 한자의 출현에 대해 늦게는 고대 도문(陶文) 중 발견된 ‘𡩇’에 근거하여 대략 춘추전국시대 전후로 보는 의견이⁶⁾ 있고, 더 이른 시기에 등장한 경(京)의 갑골문자인

‘𡩇’과 초기 의미 및 건축형식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아직 명확히 해석되지 못하였지만 ‘정’과 유사한 갑골문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더 이른 시기에 ‘정’ 한자가 등장한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⁷⁾ 있다.

진(秦) 이전에 작성된 문헌 중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보면, 서진(西晉) 시대 들어 추가된 주석에서 ‘정’ 글자가 85번 등장하지만⁸⁾ 정문(正文)에는 ‘정’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한(漢)대 들어 『전한서(前漢書)』 등 여러 문헌에서 ‘정’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정’은 기록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헌의 성격, 전후 맥락 등을 파악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 중국에서 천리(覃力)는 한대(漢代)와 그 이전 정의 기능을 ‘도시 중의 정, 행정처소의 정,⁹⁾ 역정(驛亭)과 우정(郵亭), 변방 초소의 정’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중 먼저, 도시 중의 정에는 가정(街亭), 시정(市亭), 도정(都亭), 기정(旗亭) 등이 있는데, 『한구의(漢舊儀)』에서 “낙양에 24개의 거리가 있고 거리에 하나의 정이 있다. 12개의 문이 있고 문에 하나의 정이 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기정이라 부른다(洛陽二十四街, 街一亭, 十二門, 門一亭, 人謂之旗亭)”의 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처소의 정은 『한서(漢書)·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 중의 “대략 십리일정이고 정에는 장이 있으며, 십정일향이다(大率十里一亭, 亭有長, 十亭一鄉)” 등의 기록이 다수 있다. 역정과 우정에 대해서는 『동한관기(東漢觀記)』에서 “산을 파서 길을 통하게 하고, 정을 줄지어 놓고 우를 설치한다(鑿山通路, 列亭置郵)”는 구절, 『한서·백관공경표』 중 전한(前漢) 시대에 전국에 29,635개의 정을 설치하는 기록 등을 들고 있다. 변방 초소의 정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한서·서역전

7) 궈밍우(郭明友), 「중국 옛 ‘정’ 건축 기원과 흐름(中國古‘亭’建築考源與述流)」, 심양건축대학학보, Vol.14, No.4, 2012. 궈밍우는 ‘京(경)’에 대한 『설문해자』와 『설문해자주』의 의미가 두 문헌의 작성 시대를 지나며 조금 변화됨을 주목하고, 중요한 인물이 있는 높은 대를 쌓고 올린 큰 건축에서 점차 군주가 치정하는 도시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보았다. 글자의 모양과 발음에서 유사성이 있는 ‘亭(정)’은 ‘경’에서 뜻도 차용되어 ‘정’의 초기 의미는 높게 지어진 건축으로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지녔을 것으로 보았다.

8) 대부분은 원문에서 언급된 지역을 설명하며 서진 당시 ‘**정’이 있다는 식이다. 원문검색: 상해인민출판사,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 『문헌각 사고전서 디지털판(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ROM, 상해인민출판사,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 1999

9) 행정처소로서의 정의 근거로 삼은 “대략 십리일정이고 정에는 장이 있으며, 십정일향이다” 등의 기록에 대해서는, 정과 향이 군현제도와 별도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보다 치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김태식, 앞의 논문, 16쪽

4) 휴식(休息), 유희(游休), 향유(享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5)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정자실측조사보고서-정자의 분포와 건축적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3, 32쪽

6) 천리(覃力), 『설정(說亭)』, 산동화보출판사, 2004

『西域傳』에서 “높게 다지고 정을 줄지어 놓고, 성을 연결하며 서쪽으로 향한다(稍築列亭, 連城而西)”, 『후한서(後漢書)·광무기(光武紀)』의 “정후를 쌓고 봉수를 수리한다(築亭侯¹⁰, 修烽燧)” 등을 들고 있다.¹¹⁾

위 연구는 중국에서 이후 정 건축의 발생 및 변화와 관련한 다른 여러 논문에서 원문 구절만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이후의 논문들에서 더 진전된 자료 분석이나 새로운 제시는 많지 않다. 현재와는 다른 고대 정 의 여러 기능을 구분한 점에서 위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정’이 과연 도시와 향촌, 변방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치안과 우역(郵驛), 초소와 같이 여러 기능으로 시기적으로 동시에 등장하였을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몇 중요한 문장 외에, 정이 언급된 모든 문장에서 정 의 역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1. 『사기(史記)』 중의 ‘정(亭)’

해답을 더듬어 찾기 위해 『한서』보다 앞선 정사(正史) 기록으로서 먼저 『사기(史記)』중 후대 더해진 주석을 제외한 정문에서 ‘정’ 글자가 사용된 모든 기록을 살펴보았다[표 1].¹²⁾

표 1. 『사기』 중 ‘정’ 관련 내용

구분	계(건)	사용된 예
통칭	6	天下亭(2건), 攻亭, 列亭(2건), 有亭
특정 정(亭) 지칭	12	烏江亭, 三戶亭, 葛公亭, 吳南亭, 沙陽亭(2건), 沛泗上亭, 霸陵亭, 廣宿亭, 此亭, 三亭, 應亭
도정(都亭)	1	-
기정(旗亭)	1	-
정장(亭障/亭鄣)	5	亭障(2건), 亭鄣(3건)
정요(亭徼)	1	-
정장(亭長)	16	亭長(10건), 烏江亭長, 泗水亭長, 長安亭長, 濟南亭長, 南昌亭長(2건)
정부(亭父)	1	-
지명, 인물명, 동사 및 기타	18	亭亭山(5건), 馮亭(8건), (爵)亭, 亭水, 亭疑法, 亭臯 등
계	61	-

『사기』에서 ‘정’ 자는 총 61번 등장하는데, 그중 지

명이나 인물명, 동사로 사용된 사례 등 18건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사용례로 43건이 있다. 그 중 ‘정장(亭長)’(16건) 및 특정 정을 지칭하는 것(12건) 그리고 통칭으로 사용된 것(6건)이 총 34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 외에 도정(都亭)과 기정(旗亭), 그리고 그 외에 정장(亭障/亭鄣), 정요(亭徼), 정부(亭父)의 용어가 등장한다.

『사기』에 등장한 ‘정’의 내용을 통해 전한 전반기까지 정이 어떤 지역 및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인적 구성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상당수의 정이 군사 상황에서 언급되고 있다. 명칭이 남아있는 오강정(烏江亭), 패릉정(霸陵亭), 광숙정(廣宿亭) 등은 군사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정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열을 지어 있거나(列亭)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攻亭). 이러한 정은 초소나 보루와 같은 군사 단위 시설로서, 『사기』에서 정을 ‘정장(亭障, 혹은 亭鄣)’이나 ‘정요(亭徼)’¹³⁾로 기록한 것은 정 의 이러한 기능을 잘 보여준다. 관련하여 『전국책(戰國策)·한(韓)』에서 “요, 정, 장, 새를 지키기 위하여(爲除守徼亭障塞)”라는 구절이 있고, 『묵자(墨子)』에서 “백보에 일정이고 담장 높이는 1장4척, 두께는 4척이며 규문에 두 개의 문짝을 두었다(百步一亭, 高垣丈四尺, 厚四尺, 爲閨門兩扇)”라는 기록이 있어,¹⁴⁾ 초소와 같은 시설로서 정이 전국 시기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향촌에 설치한 정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한(漢) 고조(高祖)의 생을 기록한 「고조본기(高祖本紀)」에서 그가 사수정장(泗水亭長)이었다는 부분은 향촌사회에서 정장으로서 그의 생활을 서술한 것이다.¹⁵⁾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당(唐) 대에 정의(正義)는 “진나라 법에 십리일정, 십정일향이고 정장은 정을 주관하는 관료이다(秦法十里一亭, 十亭一鄉, 亭長主亭之吏)”라고 주석을 달았다. 한 고조가 정장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한이 건국되기 전인 진(秦)대에 제도적 ‘정’이 향촌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 외 도시에 설치된 정도 있다. 기록된 도정(都亭)은 도시 임공(臨邛)의 성벽 아래에 있던 것이고 기정(旗亭)은 시장 가운데 세운 정으로 해석되는데, 『

10) 초소를 가리키는 ‘정후’는 한자로 亭侯, 亭候, 亭候가 사용되었다.
 11) 친리(覃力), 「정사종술(亭史綜述)」, 중국원립, Vol.8, No.4, 1992.
 12)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13) 障(장)은 ‘막다, 보루’, 鄣(장)은 ‘막다’, 徼(요)는 ‘순찰하다, 변방’을 뜻한다.
 14) 『전국책』과 『묵자』의 정에 대한 기록은 신빙성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다.
 15) 사수정은 패현(沛縣)에서 동쪽으로 백보 거리에 있어 현에서 매우 가까웠다.

사기』에서 이들은 각 한 번씩만 등장한다. 특히 어떤 인물이 임공의 도정에서 묵었고 이에 임공 현령이 도정에 방문했다는 기록은 도정이 지닌 관용 속식체로도 사용된 일면을 보여준다.

넷째, 단위 기관으로서 정의 인적 구성은 정장(亭長)과 구도(求盜), 정부(亭父)로 이루어졌다. 『사기』의 정문에서 한 인물이 구도(求盜)와 정부(亭父)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후한 말 응소(應劭)는 “옛날 정에 두 명의 졸이 있었다. 하나는 정부(亭父)로서 관문을 여닫는 것과 청소를 맡고, 하나는 구도(求盜)로서 도적을 쫓아 잡는 것을 맡는다(舊時亭有兩卒, 其一爲亭父, 掌關閉掃除, 一爲求盜, 掌逐捕盜賊也)”고 보충하였다.¹⁶⁾ 이는 정의 통행을 관리하고 도적을 잡는 치안의 역할을 하며, 정장 아래 정부와 구도로 최소 2~3인으로 구성되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사기』의 정문 기록을 통해 군사 상황에서 정의 다수 설치되었고 향촌에도 설치되었으며 그 수가 적었을 수도 있으나 도시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확히 우역(郵驛)을 위한 것으로 기록된 정의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2-2. 『전한서(前漢書)』와 『후한서(後漢書)』 중의 ‘정’

『전한서』와 『후한서』에 등장하는 ‘정’ 중에서 앞서 언급한 대표적 구절들 외에, 약 400년에 걸친 한대 중 전한과 후한 두 시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두 역사서를 구분하여 ‘정’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정문 중 ‘정’ 글자가 두 역사서에서 각 137번, 371번 등장하여 전한보다 후한 시대에 기록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¹⁷⁾ 그중 정장(亭長)이 두 역사서에서 각 33번, 42번으로 여전히 다수 등장하는 점 등 외에, 기능 측면에서 정의 언급된 문장을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특정 정 명칭은 많은 경우 어떤 정에서 적군을 격파했다는 것과 같이 군사 상황에서 언급되었고, 흉노나 서역과의 접경한 변방지역에서 “성벽을 쌓고 정을 열지어 놓는다(築城障列亭)”는 기록 등에서 변경

지역 초소로서의 정을 여전히 다수 확인할 수 있다.¹⁸⁾

둘째, 향촌과 도시에서 정의 언급이 증가하였다. 『전한서』에서 도정이 7번, 향정이 5번으로 『사기』에 비해 다수 등장하였고, 『후한서』에서 이들이 각기 22번, 17번으로 더욱 많아졌다. 『전한서·백관공경표』 중 “십리 일정이고 정에는 장이 있다. 십정일향이고 향에는 세 원로가 있다. … 모두 진의 제도이다. … 무릇 현, 도, 국, 읍이 1,587개이고 향이 6,622개이며 정이 29,635개이다(十里一亭, 亭有長, 十亭一鄉, 鄉有三老 … 皆秦制也… 凡縣道國邑千五百八十七, 鄉六千六百二十二, 亭二萬九千六百三十五)”에서 진대에 먼저 시행된 향과 정의 제도가 한대에도 이어져서 전국에 수많은 향과 정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의 관리자로서 정장 외에 정후(亭侯)¹⁹⁾가 『전한서』에서 4번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후한서』에서 85번으로 급격히 많이 증가하였다.²⁰⁾ 후한시기에 정의 관리자가 정장에서 정후로 점차 대체되며 제도상에서 정의 규모와 인적구성이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한서』에서 우정(郵亭)이 6번 등장하기 시작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문에서 언급된 우정을 보면 우정을 통해 서신을 받은 일,²¹⁾ 우정이 다수 훼손된 일²²⁾ 등이다. 더하여, 우정에 대한 후대 주석에서 우정을 서신을 보내는 집으로, 역관(驛館)과 같다고 해석한 부분은 한대 우정의 성격을 보여준다.²³⁾ 또한 우정과 유사한 의미로서 ‘정전(亭傳)’이 『후한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한편, 한 시대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되는 역사서가 아닌 당대 생산된 실물자료들을 통해 역사서의 사실을 일부 확인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둔황(敦煌) 인근 현천치(懸泉置) 유적지에서 한과 후한에 걸쳐 약 200년간의 업무를 기록한 죽간(竹簡)

18) 『전한서』 「권94」, 흉노전(匈奴傳) 중 “築城障列亭,至廬胸”; 「권96」, 서역전(西域傳) 중 “稍築列亭,連城而西,以威西國” 등.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19) 후(侯)가 ‘높이 쌓은 돈대’의 뜻일 때 정후(亭侯)는 초소와 같은 정 건축을 말하지만, 여기서 후는 제후의 뜻으로 정후(亭侯)는 직위를 말한다.

20) 대부분이 어떤 인물이 “**정후가 되었다”는 기록이다.

21) 『전한서』 「권12」, 평제기(平帝紀) 중 “宗師得因郵亭書言”.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22) 『전한서』 「권69」, 조충국신경기전(趙充國辛慶忌傳) 중 “其間郵亭多壞敗者”.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23) 『전한서』 「권89」, 순리전(循吏傳) 중 “郵亭書舍謂, 傳送文書所止處, 亦如今之驛館矣”.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16) 『사기』 「권104」, 열전 중 “安留, 代人爲求盜亭父(…應劭云, 舊時亭有兩卒其一爲亭父, 掌關閉掃除, 一爲求盜, 掌逐捕盜賊也).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17) 『전한서』와 『후한서』의 총 글자 수는 큰 차이가 없다. 기록된 횟수의 통계적 증감이 역사적 사실의 절대적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나, 보편성의 변화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들²⁴⁾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정'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 죽간을 통해 둔황군과 주변 군에 있는 '정'의 기능을 초소, 치안, 우역의 세 가지로 정리하기도 한다. 봉화를 위한 물품과 관련된 문건에서 등장하는 정은 초소 기능의 정으로, 정장(亭長) 등이 주로 도둑을 쫓는 공무와 관련하여 언급된 정은 치안 관련 기능으로, 정장 등이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들른 곳으로 등장하는 정은 우역(郵驛)의 기능으로 해석되며, 수량을 보면 우역을 위한 정이 초소나 치안의 정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²⁵⁾ 종합적으로 보면 한대 죽간에서 파악된 정 기능과 한대 역사서를 통해 파악된 정 기능은 대략 일치한다.

정의 이러한 제도적 기능 외에, 유식의 기능은 언제 출현하였는가? 이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들어 정이 민용화되면서 점차 발생하였다고 본다.²⁶⁾

그러나 『전한서』와 『후한서』에서 등장한 '정'의 사례를 전부 해석해 보니, 위진남북조 기록보다 이전인 『후한서』에 위와 다른 기능으로 사용된 정이 이미 등장하는 것이 확인된다. 후한 중기에 태만한 관료가 “정전에서 정무를 보는(觀政於亭傳)” 것을 비판한 기록,²⁷⁾ 그리고 후한 후기에 남양태수가 “매번 현에 행차할 때마다 정전(亭傳)에 이르러 쉬고, 항상 학관과 제주 및 처사, 유생들을 불러 집경하고 대강하였다(每行縣止息亭傳, 輒引學官祭酒及處士諸生執經對講)”는 기록 등이²⁸⁾ 있다. 여기서 언급된 정은 올바른 관료라면 정무를 보는 장소로 삼지 않아야 하는 시설, 또한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보편화된 시설, 그리고 관료가 들러서 쉬며 지역의 지식인들과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시설로 이해된다.

이것이 해당 정의 유일한 기능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는 이전에 반복적으로 초소, 치안, 우역 기능으로만 언급되던 것과 다른 유식 기능으로서의 정이 정사(正史)에 명확히 기록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후한대에 유식 기능의 정의 존재는 도상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산동성 중남부 및 강소성과 안휘성 북부지역에서 발견된 후한 중후기의 고분들 내에 있는 화상석(畫像石) 중에, 물고기가 표현된 물가에 높은 계단을 한쪽에 두고 높이 서 있는 건축이 다수 발견된 바 있다.²⁹⁾ 이 건축이 정인지 아니면 정과 유사한 사(榭) 혹은 루(樓) 등인지를 도상만으로 구별하기는 힘들고, 기능 역시 일부는 뉘시대가 표현되어 있어서 명확히 이해되지만 대부분은 도상에 따라 제사, 좌선, 연회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후한 시기에 이러한 건축이 주로 내지에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강이나 호수, 연못 등을 경관으로 삼을 수 있는 곳에 지어지며, 점차 관경(觀景)을 포함한 유식의 기능으로 확대 변화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3. 『진서(晉書)』 중의 '정'

위진남북조 시기를 다룬 역사서에서 '정'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서진(西晉)과 동진(東晉)의 역사서인 『진서』에만도 '정' 자가 263회 등장한다. '정'이 언급된 문장을 모두 검토해 보면, 도정이나 향정과 연계되어 그 관료인 '정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³⁰⁾ 정장(亭長) 역시 11회 등장하며, 또한 우정, 역정, 정전(亭傳)도 각 2, 1, 1회 등장하여 정의 제도적 측면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앞선 역사서에서와 같이 특정 정의 명칭도 많이 등장하는데, 정의 명칭이 차해정(遮害亭), 무양정(武陽亭), 군와정(軍瓦亭) 등과 같이 이전의 단순 지명이나 무(武)와 관련된 한자가 대부분 사용된 것과³¹⁾ 달리 자연이나 경관 및 인문과 관련된 한자가 사용된 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점이 흥미롭다. 서진의 도성 서쪽에 있었던 석양정(夕陽亭)을 비롯하여 청류정(清流亭),

24) 현천치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대 죽간은 약 3만 5천여 매로, 약 BC 1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중국 내륙과 실크로드의 통로상에 있는 우역 지점에서 기록한 공무용 문서의 출입 기록물이다.

25) 장권민(張俊民), 「둔황 현천 한대 죽간에서 보이는 '정'(敦煌懸泉漢簡所見的“亭”)」, 남도학단, No.1, 2010, 16쪽. 그러나 봉화를 위해 높은 지점에 건설하는 초소로서의 정을 제외하고, 변방지역에서 치안과 우역의 단일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우역의 기능을 위한 정의 수가 훨씬 많았기보다 변방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정의 우역 기능이 컸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26) 친리, 앞의 논문

27) 『후한서』 「권100」, 열전 중 후한시대 대신이자 문학가인 좌웅(左雄, ?~138)의 전기 중에 좌웅이 관료가 정전에서 정무 보는 것을 비판한 부분이다. “與同疾疢, 見非不舉, 聞惡不察, 觀政於亭傳”.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28) 『후한서』 「권55」, 열전 중 후한시대 대신인 유관(劉寬, 120~185)의 전기 중, 연희 8년(延熹八年, 165)에 유관이 남양태수(南陽太守)로 부임하였을 때의 일이다.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29) 리야리(李亞利), 「한대 화상 중의 정과 사 건축연구(漢畫像中的亭榭建築研究)」, 고고와 문물, Vol.2, 2015.

30) 대부분 “**정후로 봉해지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기록에 의하면 정후의 관할 인구수가 수천 호(戶)에 이르기도 하였다.

31) 차해정, 『전한서』 「권29」, 구혈(溝洫) 중; 무양정, 『전한서』 「권95」, 서남이랑월조선전(西南夷兩粵朝鮮傳) 중; 군와정, 『후한서』 「권43」, 열전 중.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천추정(千秋亭), 곡수정(曲水亭) 등이 있는데, 이것이 정 기능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정에 부여된 정서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산속이나 물가에 명확히 연회, 또는 사적 모임의 장소로 언급된 정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진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신정(新亭)’은 장강을 건너 동진의 수도 남경으로 들어가는 물길 옆에 있던 정이다. 신정에서 인물을 영접하거나 강을 건너는 인사들이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신정에서 음연(飲宴)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²⁾ 무엇보다 왕희지의 열전 중 잘 알려진 ‘난정서(蘭亭序)’에서 동진 영화9년(353년)에 수계(修禊)를 위해 당시 명사 41명이 난정(蘭亭)에 모였는데, 그곳은 높은 산과 고개가 있고 무성한 숲과 대나무가 있으며 맑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기록은 동진 시기에 제도적 정 건축이 아닌 개인적 정 건축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³³⁾

『진서』 외에도 동진 시기 고개지(顧凱之)의 「화운대산기(畫雲臺山記)」 중 산속 경관 중 자석정(紫石亭)이 등장하고, 북위시기 낙양을 묘사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는 화림원(華林園)을 만들고 그 속에 임간정(臨澗亭)을 세웠음을 적고 있다. 이를 통해 위진남북조 전기에 자연 속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원림 속에도 정을 건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구당서(舊唐書)』 중의 ‘정’

『구당서』의 정문에 ‘정’이 260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정장(亭長), 도정(都亭)은 각 33회, 11회로 여전히 다수 등장하지만, 정후, 문정, 우정, 기정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록의 변화는 물론 기존의 향정, 문정, 우정, 기정이 사라졌음이 아니라, 정사서에 기록될 만한 역사 사실 중에서 정과 관련된 행위 사실의 주류가 변화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사서에와 같이 『구당서』에도 특정 정 명칭이 상당수 등장하는데 모든 기록을 해석해 보면, 이전까지는 특정 정 의 정후로 봉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에서

벌어진 군사 상황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도시나 왕궁 안에 있는 특정 정이 상당수 등장한다. 특히 왕궁 안에 지어진 정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은 『구당서』가 그 이전의 정사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먼저 662년에 당 고종이 장안성의 대명궁(大明宮)인 “봉래궁의 문들과 전, 정에 이름을 지었다(制蓬萊宮諸門殿亭等名)”는 기록이 있다.³⁴⁾ 구체적인 정 명칭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대명궁 내에 있는 이원정(梨園亭)과 회경전(會慶亭)에서 연회를 한 기록이 있고³⁵⁾ 금원(禁苑)의 태액지(太液池)에 있던 태액정(太液亭)에서 강학하거나 태액정에 석양이 지는 경관을 그리도록 한 기록,³⁶⁾ 침향정(沉香亭)을 만들도록 침향을 바친 기록, 내궁에 있는 산정원(山亭院)에서 연회를 한 기록, 승양전(昇陽殿) 동쪽의 방압정(放鴨亭)이 훼손된 기록³⁷⁾ 등등이 있다.

『구당서』 「권38」 지리(地理) 중에 왕궁 내 중요 건축 유형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태극궁(太極宮)에 정전(正殿)인 태극전 외 별전(別殿)과 정(亭), 관(觀)이 35개소 있고, 대명궁에는 정전인 함원전(含元殿) 외에 별전, 정, 관이 30개소 있으며, 황성 북쪽의 금원(禁苑)에는 이궁(離宮)과 정, 관이 24개소 있었다.³⁸⁾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대 왕궁 안에서 전(殿), 관(觀) 건축과 함께 ‘정’이 하나의 중요한 건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내에 있는 정을 살펴보면, 곡강정(曲江亭)은 당 장안성 동남쪽에 있던 일종의 도시공원인 곡강지(曲江池)에 있던 정자로서, 곡강정에서 연회한 기록이 덕종대에만도 8회 등장하고³⁹⁾ 835년에는 곡강지에 신축한

34) 『구당서』 「권4」, 본기 중 당 고종 용삭(龍朔) 2년(662년). 봉래궁은 당 장안성 북동쪽에 있는 대명궁을 가리킨다.

35) 『구당서』 「권7」, 본기 중 709년 “乙亥, 宴侍臣及近親於梨園亭”; 『구당서』 「권13」, 본기 중 797년 “三月戊子, 造會慶亭於麟德殿前”, “丙申, 皇太子於麟德殿西亭見奏事官”.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36) 『구당서』 「권16」, 본기 중 820년 “召侍講學士韋處厚路隨, 於太液亭講‘毛詩關雎’, ‘尚書洪範’等篇”; 『구당서』 「권17」, 본기 중 “命畫工圖於太液亭朝夕觀焉”.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37) 침향정 관련 『구당서』 「권7」, 본기 중; 산정원 관련 『구당서』 「권7」, 본기 중 외 다수; 방압정 관련 『구당서』 「권17」, 본기 중.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38) 『구당서』 「권38」, 지리 중 “皇城… 內別殿, 亭, 觀三十五所. … 東內曰大明宮, … 別殿, 亭, 觀三十餘所. … 禁苑在皇城之北. … 苑內離宮, 亭, 觀二十四所.”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여기서 전(殿), 관(觀)과 정(亭)은 특별한 경우 단일건축 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건축이 원(院)을 이루는 한 장소에 주건축으로 전, 관, 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39) 『구당서』 「권13」, 본기 중 “癸丑, 賜百僚宴於曲江亭”, “戊辰,

32) 『진서』 「권65」, 왕도(王導) 중 “過江人士, 每至暇日, 相要出新亭飲宴”.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317년 서진이 멸망할 때 왕이 장강을 건너 남경으로 피난하였는데, 인사들이 신정에서 음연(飲宴)하면서 망국을 탄식하고 눈물을 흘린 이야기로 인해 ‘신정대음(新亭對泣)’의 성어가 전해진다.

33) 『진서』 「권80」, 열전 중 “會於會稽山陰之蘭亭, 修禊事也”.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자운루(紫雲樓)와 채하정(彩霞亭)에 편액을 내린 기록이 있다.⁴⁰⁾ 또한 구곡정(九曲亭)과 임위정(臨渭亭)에서 연회한 기록 등 다수 있다.

한편 개인이 조성한 정도 상당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당대 대신이었던 안사고(顏師古)가 외부와의 왕래를 끊고 원정(園亭)에 머물렀다는 기록, 이림포(李林甫)가 장안성 동쪽에 조성한 별서(別墅)의 임정(林亭)이 그윽하고 깊기로 도읍에서 으뜸이라고 평한 기록⁴¹⁾ 등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은 그 명칭이 특별히 유명한 것이 아니면 주변 자연경관인 임(林) 또는 지(池)와 함께하여 임정(林亭), 지정(池亭)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²⁾ 이러한 정에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취하거나, 모임 및 연회를 하거나 조용히 사유했다는 기록에서 그 기능을 엿볼 수 있다.⁴³⁾ 특히 '정자(亭子)'라는 용어가 앞서 『진서』에서 1회 등장한 이후 『구당서』에서 9회나 등장하는데, 그 배경에는 기존의 공적 혹은 규모를 갖춘 건축 집합체로서 정과는 다르게 사적 혹은 좀 더 작은 규모의 정의 보편화를 유추할 수 있다.

2-5. 소결

이상을 통해 파악된 중국 당 이전까지 '정' 기능의 시대별 등장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 목적을 위한 초소나 보루로서의 정이 이르면 전국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진(秦) 시기에 향촌의 치안을 위한 정이 운영되었다. 셋째, 전한 전기에 도시에서 교통로나 시장의 치안 관리를 위한 정이 존재하였고, 전한 시기에 우역을 위한 정이 운영되었다. 넷째, 연회, 강학과 같은 유식 기능은 위진남북조에 앞서 이미 후한 중후기에 정에 부여되었다.

즉, 정은 시작은 군사적 상황이 있는 지역이었고 이후 점차 거주지로 확대되어 치안의 기본 점 단위로서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그러한 배치망을 이용하여

정보 전달의 우역 기능을 점차 담게 되었을 것으로⁴⁴⁾ 생각된다.

정 기능의 등장 과정의 이해를 통해 정 기능을 치안, 우역, 유식의 3가지로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다. 앞서 정의 기능을 도시의 정, 행정치소의 정, 우역의 정, 변방 초소의 정, 유식의 정 등으로 세분한 사례를 보았지만, 그중 우역이 별도의 명확한 기능임에 비해, 나머지 도시, 행정치소, 변방초소는 위치와 관리 대상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모두 치안을 위한 것이다. 앞서 정의 인적 구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정에는 관문을 관리하는 자와 도적을 잡으러 다니는 자를 두어 오늘날의 파출소와도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정의 기본적인 기능을 치안으로 보면 후한 시기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적힌 “정, 백성이 평안하게 정주하는 것이다(亭, 民所安定也)”⁴⁵⁾의 의미가 쉽게 이해된다.

치안이 정의 기원적인 기능이었다면, 우역은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정의 보편적인 기능이었다. 이러한 공적인 '치안'과 '우역'은 한때까지 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었고, 이후 후한 시기에 '유식'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며 위진남북조 들어 유식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정의 역사적 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 건축의 형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정 건축은 건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진(晉) 시기 정후가 머물렀던 정과 당 시기 궁궐 안에 있던 정은 종종 단일 건축을 넘는 건축 군체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 건축의 기원이 된 치안과 우역이라는 기본 기능을 위한 건축은 그 보편적 건축형식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즉, 정을 건립하는 위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귀목을 포함하여 교통로와 관련된 곳에 두되, 정과 정 사이의 간격은 인간이 1일 동안 이동 혹은 활동하는 범위로 하여 세워졌다. 또한 정의 내부에서 주변을 막힘 없이 관망하기 좋으면서 우역 전달자의 눈에 잘 띄도록 지형상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건축 면적은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부 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관망 등을 위해 건축 자체의 높이도 비교적 높게 만들었을 것이다.

群臣宴曲江” 등 다수

40) 『구당서』 「권17」, 본기 중 “內出曲江新造紫雲樓彩霞亭額”.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41) 『구당서』 「권73」, 열전 중 “杜絕賓客, 放志園亭”; 『구당서』 「권106」, 열전 중 “城東有薛王別墅, 林亭幽邃, 甲於都邑”.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42) 다른 사례로 『구당서』 「권97」, 열전 중 “池亭奇巧” 등이 있다.

43) 『구당서』 「권106」, 열전 중 “嘗借苑中亭子納涼”; 『구당서』 「권147」, 열전 중 “佑城南樊川有佳林亭, 卉木幽邃, 佑每與公卿宴集其間, 廣陳妓樂”; 『구당서』 「권174」, 열전 중 “院有精思亭, 每朝廷用兵, 詔令制置, 而獨處亭中, 凝然握管.”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44) 정은 우역자들에게 여정 중의 숙식처가 되었고, 공무원 뿐 아니라 필요시 민간인에게도 제공되기도 한 정의 여관으로서의 역할은 교통로 상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응답 포함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45) “정, 백성이 평안하게 정주하는 것이다. 정에는 루가 있다. 高 글자로부터 간략한 것이다. 丁으로 발음한다(亭, 民所安定也. 亭有樓, 從高省, 丁聲)”.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따라서 좁고 높은 모습은 정 건축형식의 특징이었다. 그런 정 건축의 인상적인 모습은 후한시대 문인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서 “기정의 5층은 백 길을 내려다보고(旌亭五重俯察百隴)”⁴⁶⁾라는 표현 등에서 다수 확인되고, 또한 중국어에서 늘씬하게 우뚝 솟은 모습을 가리키는 형용사인 ‘정정하다(亭亭)’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등장하고 변화하여 보편화된 ‘정’의 모습은 한반도에서 삼국 시기에 특히 위진남북조와의 교류를 통해 인지되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구려와 백제는 위진남북조 시기에 중원지역의 진진(前秦), 강남지역의 동진(東晉), 남조 양(梁)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신라도 377년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고 381년 다시 위두를 파견하는 등 교섭하며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통해 발전을 모색하였는데,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기능의 ‘정’이 삼국에 인지되었을 것이다.

3. 한국 삼국과 통일신라 시기 ‘정(亭)’의 등장과 기능

삼국과 통일신라에 대한 고문헌 중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정’에 대한 기록을 보면 [표 2]와 같다. 두 문헌에서 ‘정’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488년 신라 비처왕(소지왕)이 ‘천천정(天泉亭)’에 거둥하였다는 기록이다. 백제는 655년에 태자궁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다는 기록이 가장 이르고, 고구려의 ‘정’에 대한 기록은 두 문헌에 없다.

이 기록만으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정’이 늦어도 5세기 말 신라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빈번하게 중국 남북조와 교류했던 점, 신라에 비해 시간상 조금 늦고 각(閣)이나 루(樓)에 대한 기록이지만 백제 동성왕 22년(500년)에 “임류각(臨流閣)을 궁궐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길(丈)이었다.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 백제 무왕 37년(636년)에 망해루(望海樓)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정이 신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사료의 제한으로 더 이른 시기 정 의 등장과 그 기능을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정’이 어떠한 기능이었는지 일부 유추해볼

수 있는데, 기록 내용을 정 기능의 관점에서 나누어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정’ 관련 내용

연도	내용 ⁴⁷⁾	출처
488년	[신라] 제21대 비처왕 즉위 10년 무진에 천천정(天泉亭)에 거둥하였다.	삼국유사, 권1·기이
651년	[백제] (당 고종(高宗)의 글 중) “...무릇 변정(邊亭)에서 피를 흘리며”	삼국사기, 권28·백제본기
655년	[백제] 15년 봄 2월에 태자궁을 수리하였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망해정(望海亭)을 왕궁 남쪽에 세웠다.	삼국사기 권28·백제본기
659년	[신라] ... 대왕이 놀라고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두 혼령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牟山亭)에서 불경을 설하고 ...	삼국유사, 권1·기이
성덕왕대 (702~737)	[신라] 다시 이틀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臨海亭)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수로]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	삼국유사, 권2·기이
경덕왕대 (742~765)	[신라] ... 그 버린 곳에 절의 스님들이 정사(亭榭)를 세워, 이름을 치루(置樓)라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삼국유사, 권5·피은
	[신라]경도역(京都驛)은 경덕왕이 도정역(都亭驛)으로 고쳐 삼았으나, 후에 옛 이름으로 회복되었다.	삼국사기 권38·잡기
	[신라]청연궁전(靑淵宮典)은 경덕왕이 조추정(造秋亭)으로 고쳤고 후에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대사는 2명, 사는 2명, 궁용은 1명이다.	삼국사기 권39·잡기
진성여왕대 (887~897)	[신라] 병춘궁전(屏春宮典)은 경덕왕이 현룡정(玄龍亭)으로 고쳤고 후에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	삼국사기 권39·잡기
	[신라] 효종왕이 남산 포석정(鮑石亭)에서 놀 때 ...	삼국유사 권5·효선
927년	[신라] ... [경애]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鮑石亭)에 가서 잔치를 열고 노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권12·신라본기

첫째, 두 문헌에 등장하는 천천정(天泉亭), 망해정(望海亭), 임해정(臨海亭)과 포석정(鮑石亭) 중 망해정과 포석정은 왕궁 내에 있었고, 천천정과 임해정은 그 위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명칭을 보면 샘(泉)

47) ‘포석정’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 여러번 기록된 경우에는 시기상 또는 내용상 중요한 일부 만을 표로 정리함. 원문검색: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46) 『문선주(文選註)』 「권2」 중. 상해인민출판사 외, 앞의 책.

및 바다(海)와 직·간접적으로 접해있을 가능성이 크고 포석정의 경우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의 장소로서, 이들 모두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⁴⁸⁾ '정'에 자연과의 관계성이 중시된 명칭을 붙인 것은 이들에게 치안이나 우역의 제도적 기능보다 환경이나 모임, 유식의 기능이 더 중요하게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신라 659년의 기록에 언급된 모산정(牟山亭)의 경우 그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기능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고,⁴⁹⁾ 경덕왕대 절의 스님들이 '정사(亭榭)'를 세우고 '치루(置樓)'라 이름하였다는 내용 역시 그러하다. 불교 시설 내에서 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모산정이 기록된 7세기 후반은 수많은 신라승이 구법을 위해 당과 인도를 오가고 당에서 장기간 지낸 자장율사가 646년 왕의 명으로 신라로 돌아오는 등 불교를 매개로 신라와 당의 인적 교류가 빈번하던 시기이므로⁵⁰⁾ 신라의 불교 시설에서 '정'이 등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경덕왕이 경도역(京都驛)을 도정역(都亭驛)으로 고쳤다는 기록은 도정 또는 우역이라는 제도적 측면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신라 487년에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였다(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⁵¹⁾는 기록이 있어 신라의 우역제 운영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우와 역의 제도를 운영했다면 우정(郵亭)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하여 우역 업무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관으로서 『삼국사기』에는 '고역전(尻驛典)'⁵²⁾이 있고, 경도역과 도정역에서도 '역'에 대한 기록은 일부 있는 반면 '우'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이르러 『과한집(破閑集)』에서 "일찍이 우정(郵亭)의 벽에서 시 한 수를 보았다(嘗於郵亭壁上, 見一絶)"와 같이 매우 적은 수의 기록이 보이지만 신라시대의 기록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

부 학자는 신라에서 우보다는 역의 제도가 일반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본다.⁵³⁾ 즉, 우역 기능의 정은 신라에 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도정(都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정은 중국에서 도시의 인근에 두어 치안 관리를 하는 보편적인 시설로 도정을 역과 공유하는 경우 역명을 도정역(都亭驛)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경덕왕때의 도정역은 치안의 제도적 기능이 부여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신라 경덕왕대에 정이 환경, 유식 외에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헌에서 도정이 다시 등장하지는 않고, '도정역'도 후에 다시 옛 이름인 '경도역'으로 회복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도시 치안 기능으로서의 정 역시 신라에 수용되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넷째, 변경지역의 초소와 같은 정이 신라에 있었을까? 『삼국사기』에 유사한 의미의 기록이 하나 있다. 백제 의자왕 651년에 당에 보낸 사신이 돌아올 때 가지고 온 당 고종(高宗)의 글 속에 "무릇 변정(邊亭)에서 피를 흘리며(比夫流血邊亭)"⁵⁴⁾라 하여 '변정'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백제의 것이 아니라 당의 변경지역에 있는 정이고, 문헌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상까지의 해석에 의하면 신라에서 정 기능으로 명확한 것은 유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경덕왕대(742~765)에 청연궁전(靑淵宮典)과 병촌궁전(屏村宮典)을 각각 조추정(造秋亭)과 현룡정(玄龍亭)으로 고쳤다는 기록은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신라에서 전(典)은 다양한 직능을 가진 특수 관부로서,⁵⁵⁾ 궁전(宮典)은 청연궁과 병촌궁의 사무를 담당하던 관부로 이해된다.⁵⁶⁾ 경덕왕대 관제개혁 때 전(典)은 부(府), 궁(宮), 성(省), 설(設), 방(房), 사(司), 국(局) 등으로 다양하게 개정되었다가 다시 복고(復古)된 바 있다.⁵⁷⁾ 당시 일부 궁전(宮典) 역시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 회궁전(會宮典)이 북사설(北司設)로, 예궁전(穢宮典)이 진각성(珍閣省)으로, 그리고 청연궁전과 병촌궁전이 조추정과 현룡정으로 바뀐 것이다.

48) 앞서 백제 임류각(臨流閣)이 연못과 함께 위치했다는 기록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49) 불교 시설 내에서 '정'이 특별한 기능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의 유형을 형성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불교 시설 중의 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50) 당의 불교 시설에서도 정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고, 정사에서서는 처음으로 『구당서』에 정(亭)과 사(榭)를 병렬하여 '정사'로 표기한 사례가(열전 제68) 등장한다.

5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중. (원문검색: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2) 『삼국사기』 「권39」 잡기 중: "尻驛典, 看翁一人, 官翁一人."

53) 정요근,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23~24쪽

54)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중.

55) 이인철,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지사, 1993. 48쪽

56) 최일례, 「신라 직관명 '史'에 대한 검토」, 세계역사학 문화연구, Vol.63, 2022, 119쪽

57) 신카이 사키코, 「경덕왕 해공왕대 관제개혁의 성격에 관한 검토」, 한국문화, Vol.92, 2020, 90~96쪽.

표 3. 10세기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 ‘정’의 시대별 기능

한국 (●)	유식(游息)	우역(郵驛)	치안 관리			중국 (○)
			도시	향촌	변경(邊境)	
	-	郵亭, 驛亭 등	都亭, 門亭, 旗亭, 街亭 등	鄉亭, 下亭, 野亭 등	亭障(鄣), 亭徼, 亭候(侯), 邊亭 등	
고조선				○	○	전국 이전
				○	○	진
삼국	○	○	○	○	○	한
	● ○	○	○	○	○	위진남북조
삼국말, 통일신라	● ○	○	○	○	○	수, 당

즉 ‘정’이 경덕왕대 관부 명칭에 상응하여 사용되었고, 이는 신라에서 ‘정’이 단순히 유식을 위한 건축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2건에 불과하고 『삼국사기』에 등장한 다른 많은 궁전(宮典)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내부에 조추정과 현룡정이라는 정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단순히 장소명을 겸한 관부명이 된 것인지 그 실체와 기능이 불분명하다.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당 시기에 왕궁 안에 전(殿), 관(觀)과 함께 중요한 건축으로 정이 열거되었는데, 신라에서는 정이 단순히 한 유형의 건축이 아닌 관부로서 확립되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두 역사서 외에, 삼국과 통일신라 시기에 생산된 금석문이나 죽간, 기타 문서 등에서 필자는 ‘정’ 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통일신라 말 최치원의 문집인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서 ‘정’ 자가 4번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⁵⁸⁾ 이 문집에서 현정(峴亭)은 현산에 세운 비석을 위한 정자이고, 정후(亭候)⁵⁹⁾는 치안 등을 위해 교통로 상에 둔 정자이며, 시에서 2번 등장하는 조어정(釣魚亭)은 물가에 세워진 관경이나 유식을 위한 정자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 당

나라에 있던 정을 말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최치원과 같은 유학자 및 구법승, 사신들은 여러 기능의 정을 접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쓴 글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문헌들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신라의 지식인들도 변정, 정후와 같이 정의 다른 기능을 간접적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치안이나 우역을 위한 정이 삼국이나 통일신라에서 제도적으로 세워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즉, 통일신라에 들어와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개혁을 단행한 경덕왕대에 도정역이나 관부 명칭으로 ‘정’이 사용되었지만 정의 기능 중 우역이나 치안을 수용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삼국과 통일신라 사회에서 관경 및 연회와 같은 유식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4. 결론

중국에서 ‘정’ 건축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의 기능이 아닌 치안의 기능으로 시작되어 우역의 기능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이후 유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르면 전국 시기에 군사적 목적을 위한 초소와 같은 기능으로 먼저 등장하였고, 진 시기에 향촌의 치안을 위한 정이 운영되었다. 서한 전기에 도시에서 교통로나 시장의 치안 관리를 위한 정이 있었으며 서한대에 우역을 위한 정의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 한대까지 변경지역의 감시를 위한 초소, 그리고 도시와 향촌의 치안 시설을 포함한 치안은 정의 기원적인 기능하였고, 정보 전달을 위해 각 지역을 연결하도록 설치되어 관용 숙식처의 역할도 하여 그 수가 가장 많았던 정에서

58) 『계원필경집』 중 ‘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2」 표(表) 중 “...저 두원개의 현정(峴亭)은 자기 자랑 아닌 것이 없고(且柱元凱之峴亭, 無非自衛); 「권6」 기(記) 중 “...육지의 서북쪽은 여국과 오만으로 가는 길과 접해 있다. 그동안 정후(亭候)가 없었기 때문에 노정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陸之西北則接女國, 烏蠻之路, 曾無亭候, 莫審塗程); 「권17」 계장(啓狀) 중 “조어정(釣魚亭) ...한가히 연월을 읊으며 봉호를 생각하네(閑吟煙月憶蓬壺)”. (원문검색: 한국사대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59) 고려 초에도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 정후(亭候)를 건설하였을 때 고려가 강력히 항의한 기록이 있고(『동인지문사록(東人之文四六)』, 「권2」 중: “近又添營亭候”) 이에 대응하는 고려의 변방 군사시설이 있었겠지만 이를 ‘정’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보듯 우역은 정의 보편적인 기능이였다.

한편, 동한 중후기 정 건축의 휴식 및 강학 등의 기능이 보편화된 것이 확인된다. 유식의 기능은 서진 시기에 명확히 확인되며, 위진남북조 시기에 정의 치안, 우역 등 관용 기능에서 점차 귀족이나 식자층에 의해 민용화되면서 유식의 기능으로 본격적으로 변화되었다. 당에 이르러 경제와 문화가 전성기에 이르면서 왕궁, 명승지 및 개인 별서 등에서 유식을 위한 건축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기존의 치안, 우역의 기능이 제도의 운영에 따라 유지되면서 수, 당, 송 및 이후까지 그러한 기능의 정의 일부 확인되지만, 정의 가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감상적 측면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한반도의 삼국에 이러한 여러 기능의 '정'이 인지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 '정'의 기능을 유추해 보면, 정은 물과 관련된 지점에 세우며 관경, 연회와 같은 유식으로 사용되었다. 통일신라 경덕왕대에 제도적 정과 유사한 기능이 일부 보이지만, 중국에서 한대까지 정의 주도적 기능이었던 치안과 우역이 신라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정의 한반도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삼국과 통일신라 사회에서 정의 기능은 유식이 가장 주도적이었고 이후 한반도에서의 정은 이 유식의 기능을 늘 중심에 두고 확대 재생산되어 갔다.

참고문헌

1.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계월필경집』, 『동인지문사록(東人之文四六)』. 원문검색: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 상해인민출판사,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 『문연각 사고전서 디지털판(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CD-ROM, 상해인민출판사, 적지문화출판유한공사, 1999
3. 김태식, 「누정건축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전남지방의 누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4.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정자실측조사보고서-정자의 분포와 건축적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3
5. 정요근,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6. 친리(覃力), 「정사종술(亭史綜述)」, 중국원림, Vol.8, No.4, 1992

7. 친리(覃力), 『설정(說亭)』, 산동화보출판사, 2004
8. 장위리엔(张玉莲), 「한대 도정 고찰(汉代都亭考)」, 중국문화연구, No.3, 2007
9. 장권민(張俊民), 「돈황 현천 한대 죽간에서 보이는 '정'(敦煌悬泉漢簡所見的“亭”)」, 남도학단, No.1, 2010
10. 궈밍우(郭明友), 「중국 옛 '정' 건축 기원과 흐름(中國古'亭'建築考源與述流)」, 심양건축대학학보, Vol.14, No.4, 2012.
11. 리야리(李亞利), 「한대 화상 중의 정과 사 건축연구(漢畫像中的亭榭建築研究)」, 고고와 문물, Vol.2, 2015
12. 다이웨이홍(戴卫红), 「위진남북조시기 정 제도의 변화(魏晉南北朝时期亭制的变化)」, 사회과학전선, Vol.2, 2016
13. 시웅티에지(熊鐵基), 「'십리일향', '십리일정'- 진한시기 향, 정, 리에 대한 결단("十里一鄉" "十里一亭"-秦漢鄉,亭,里關係的決斷)」, 강한논단(江漢論壇), No.8, 1983
14. 신카이 사키코, 「경덕왕 해공왕대 관계개편의 성격에 관한 검토」, 한국문화, Vol.92, 2020

접수(2023.09.01.)

수정(2023.12.28.)

게재확정(2024.01.03.)